

가시마 신사

일생에 한 번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알려진 이 신사에는 참배와 기원을 위해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연말연시 시기에는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 1 월에는 대학 입시 시즌 전에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방문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 나이 수만큼 본전을 도는 '신텐마와리'가 진행됩니다. 신사에는 돌았던 횃수를 기록하기 위한 막대가 놓여있습니다. 참배자는 자신의 나이 수만큼 막대를 잡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막대를 하나씩 다시 돌려놓습니다. 정확한 횃수를 돌면 손은 비게 됩니다. 나즈리(소원의 돌)를 만지거나 건물 옆에 형형색색의 종이학 사슬을 매달아 놓으며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

이 신사는 약 700년 전에 지어졌지만, 수 세기에 걸쳐 재건, 개축되어 왔습니다. 신사의 중요한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오토리이(大鳥居)는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5 번째로 큰 도리이입니다.

가시마 신사 근처에 있는 가시마 오기다이라 자연공원에서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2,000 그루 이상의 벚나무에 벚꽃이 피어납니다. 공원의 북쪽 사면 중턱에는 예로부터 매가 둥지를 트는 바위가 있습니다. '다카노스(매의 둥지)'라고 불리는 이 바위는 높이가 23m, 지름이 37m입니다. 공원에서는 아와지 섬과 쇼도시마 섬 등 세토 내해에 있는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